

하늘의 역사는 상상초월

시미즈후미코(장성교회)

2014년 6월 2일. 나는 아들의 축복과 2세로서의 삶을 놓고 무기한 조식 금식의 정성조건을 시작하였다. 2세들의 축복이 쉽지 않음을 알고 몇 년 전부터 '무슨 조건이라도 세워 준비를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장에 다니면서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망설이며 3~4년의 시간을 흘려보내 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상 부모들도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간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도 내놓은 채 살리려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놓고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솟아나 때가 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의 시작을 했다.

시작한지 7일을 지나 8일째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전 10시, 여느 날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다. 2년 동안 여행을 다녀온다는 내용의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행이라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잠시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군 입대를 했구나.' 우리 부부는 아들의 군 입대 날짜를 알지 못했다.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부모이면 입대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 했을까. 심지어 예약 문자였지 않는가. 별별 생각을 다하면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봐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3일 만에 닦아내고 마음을 다시 잡았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헌제에 걸렸던 3일 노정처럼...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성 조건을 시작했는데 이런 배신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조건을 그만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이 정성 조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었기에 아들의 행동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닫고, 여기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늘 이럴 때 감정에 못 이겨 실패를 반복했었다. 이번엔 이겨야 했다.

또한 예쁜 것을 할 때 사랑하는 것은 간단하고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사랑이다. 우리 부부가 참된 부모로 성장하기 위한 시련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 진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4주 훈련이 지나서 면회하러 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 식구와 아들의 친구까지 함께 가서 훈련 수료를 축하해 주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다. 전에는 웬지 어색하고 남의 일을 말하는 듯한 내용이었지만 후에는 군 생활 속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속마음도 조금씩 표현하는 내용으로 달라진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를 읽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늘에 감사했다. 그렇게 아들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며 전역할 날이 가까워졌다.

전역하면 청평 40일 수련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권했다. 아들은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며 전역 후 청평수련원으로 출발했다. 나의 입장으로는 너무 쉽게 따라주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까지 들었다. 출발은 좋았지만 문제는 동기였다. 부모의 권유로 가는 수련이라 본인의 주체적인 동기가 없다. 나는 서둘러 효정봉헌서를 작성하여 아들이 40일

수련을 통하여 2세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나중에 들어 보니까 처음엔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였지만 수련생들과의 좋은 만남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점점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수련이 끝날 무렵에 겨울방학 때 있는 성화학생 14일 수련의 스텝을 모집했는데, 함께 수련을 받던 수련생들이 스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 아들도 동참하였다. 14일 수련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사정이 생겨 아들은 처음에 맡은 진행의 책임분담과 총 조장이라는 중책을 겸해서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하는 스텝이고 부족함 투성이었겠지만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아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 수련을 마치고 2세로서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1년 후에 또다시 40일 수련을 받았다. 그때는 본인의 의지로 찬양대에도 도전하고 보람차게 수련을 받고 있었다. 그 수련 중에 봉사 시간의 우연한 만남을 인연으로 지금은 청평 천원단지 내에서 일하고 있다. 저는 아들이 여기까지 올 줄을 몰랐다.

일련의 아들의 성장기를 보면, 하늘은 늘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맞춰 역사하신다는 흔한 말을 너무도 실감한다. 내가 한 것은 오직 나로서는 큰 결심으로 자그마한 조건을 세운 것뿐인데, 나머지 환경 설정도 시나리오도 다 하늘이 준비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물론 잘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그때가 나의 책임분담을 다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하늘의 뜻에 맞추는 길이나 자신의 타락성과 습관성으로 오는 생각에 맞춰지는 길이나)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나의 책임분담이 아닐까 싶다. 그런 선택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한다. 그때마다 하늘이 보고 있고, 하늘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보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미소를 짓게 할 것이냐다.

‘신의 한수’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들의 이 성장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이야말로 ‘신의 한수’가 아닐까 싶다. 어느 누가 이런 슬프고도 강렬한 시작을 상상하고, 반전적인 전개를 생각이나 했을까. 저도 기도를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상상은 못했다. 하늘은 나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하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노력보다 몇 백배 몇 천배도 더 하는 것 같다. 하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상상초월이다.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 정말로 그때그때가 반짝이는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하늘의 역사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25년 전 통일교에 나 자신이 달라지고 싶고 거둬나고 싶어서 들어왔음에도, 자기부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늘 도망만 치고 살았던 내가, 주어진 환경이나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감사는 커녕 불만 불평 투성이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감사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같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도 몰랐으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와 참부모님의 귀한 승리로 인한 시대적인 혜택인 것 같다. 그런 터전위에서 우리 가족들이 또 나를 성장시켜준다. 가족들로 인해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도 나로 인해 행복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 이런 가정을 나에게 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린다.